

울 산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3가단19747 손해배상(자)

원 고 1. A

2. B

3. C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준

피 고 D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

변 론 종 결 2013. 11. 15.

판 결 선 고 2013. 11. 2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 A, B에게 각 155,327,308원, 원고 C에게 1,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2. 11. 24.부터 2013. 11. 29.까지 연 5%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1/5은 원고들이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 A, B에게 각 206,134,009원, 원고 C에게 30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2. 11. 24.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E는 2012. 11. 24. 16:00경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00-0000호 포터II슈퍼캡내장탑차(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)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협성노블리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위 아파트 제103동 앞 도로를 시속 약 2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.

나. 당시 망 F(2004. 3. 3.생)은 형인 원고 C를 비롯한 친구들과 어울려 E의 진행 방향 우측 인도에서 E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갈림길에 이르러 좌측 차도 쪽으로 뛰어들었고, 망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E가 망인을 충격한 후 역과함으로써 망인은 두개골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즉사하였다.

다. 원고 A, B은 망인의 부모이다.

라. E는 수사 내지 형사재판 과정에서 형사합의금으로 3,000만 원을 지급 내지 공탁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을 제1호증의 1, 2, 을 제4호증의 1 내지 4, 7 내지 10의 각 기재, 갑 제5호증의 1 내지 4, 을 제4호증의 5, 6의 각 영상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

가. 책임의 발생

앞서 본 바와 같이 가해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를 주행함에 있어 망인을 비롯한 어린이들이 우측 인도에서 혹은 걸어서 혹은 뛰어서 앞서 가고 있었다면, 운전자인 E로서는 어떠한 돌발상황에서도 즉시 정차하거나 기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서행하면서 예의 상황을 주시하였어야 할 터인데, E는 망인을 발견치 못하여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못하고 망인을 역과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.

위 사고는 이와 같은 가해차량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,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사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나. 책임의 제한

다만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, 피고의 책임을 95%로 제한함이 손해배상제도의 근간인 공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.

3. 손해배상책임의 범위

아래에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부분은 이를 배척한다.

가. 망인의 일실수입(월 5/12%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,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,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, 이하 같음)

(1) 기초사항

성별(남1,여2)	1	사고시 연령	8세 8개월 21일
생년월일	2004-3-3	기대여명	70년
사고 발생일	2012-11-24	여명 종료일	2082-11-7
가동연한(세)	60	가동 종료일	2064-3-2

(2) 평가기준 및 가동기간

원고가 구하는 2012년도 하반기 도시일용노동자 노임을 기초로 군대(19개월)를 제대하는 다음날인 2024. 12. 3.부터 만 60세가 되는 2064. 3. 2.까지 산정.

(3) 생계비 공제 : 1/3

(4) 계산결과 : 227,268,018원

	기간 초일	기간 말일	노임단가	일수	월소득	생계비	m1	호프만1	m2	호프만2	m1-2	적용 호프만	기간일실수입
1	2024-12-3	2064-3-2	80,732	22	1,776,104	33.33%	615	304,5516	144	112,6135	471	191,9381	227,268,018

[인정근거]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장례비 : 500만 원(망인의 손해로 봄)

[인정근거] 갑 제6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

다. 책임의 제한

(1) 일실수입 : 215,904,617원(227,268,018원 × 95%)

(2) 장례비 : 475만 원(500만 원 × 95%)

라. 위자료 : 망인 7,000만 원, 원고들 각 1,000만 원(사고의 경위, 망인의 연령, 원고 C이 사고 상황을 목격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, E가 형사합의금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 내지 공탁한 점 등 참작)

마. 상속관계 : 망인의 손해배상금 290,654,617원(일실수입 215,904,617원 + 장례비 475만 원 + 위자료 7000만 원)을 원고 A, B이 각 1/2인 145,327,308원씩 상속.

4. 결론

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, B에게 각 155,327,308원(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45,327,308원 + 위자료 1,000만 원), 원고 C에게 1,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사고일인 2012. 11. 24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

인 2013. 11. 29.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남기용